

중년기 주부의 가족 역할 수행과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iddle-aged housewives' family role performa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서울대학교 소비자 아동학과
박사과정 신기영
서울대학교 소비자 아동학과
교수 옥선화

Dept.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iv.

Doctoral course : Ki Young Shin

Dept.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iv.

prof. : Sun Wha Ok

〈목 차〉

- | | |
|------------|---------------|
| I. 문제제기 | IV. 조사방법 및 절차 |
| II. 이론적 배경 | V. 결과 및 해석 |
| III. 연구문제 | VI. 결론 및 제언 |
|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of middle-aged housewives' family role performa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unemployed housewives living in the Seoul area, whose age was from 40 to 59. The sample size was 374. Data were analysed by the frequencies, mean, oneway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The middle-aged housewives, -who were university graduated, had higher family income, believed religion- had higher psychological well-being.

2) The more middle-aged housewives performed spousal role, mother role, house keeper role, and kin keeper role, the higher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was.

* 본 연구는 1996년도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부설 생활과학연구소의 일부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3)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spousal role and mother role performance had positive effect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And especially spousal role performance had the most important effect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1. 문제제기

평균 수명의 증가와 자녀양육 기간의 단축으로 여성의 생애 단계에서 중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서 최근 중년기 주부의 심리적 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중년기 주부는 신체적으로 50세를 전후로 폐경을 경험하여 건강이 약화되고 여성성을 상실함으로써 심리적 불안감과 우울증을 느낄 수 있고(김명자, 1989) 주부역할의 비구조성과 비전문성, 미래에 대한 통제력의 부족(Gove & Tudor, 1973)으로 자아 개념이 낮아질 수 있다. 또한 가족과 세대관계의 재구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한다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선행 연구들(김명자, 1989; 신기영, 1991; 장재정, 1987; 진미정, 1993)에서는 중년기 주부의 위기감, 스트레스, 우울증 등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실제로 중년기 주부들의 위기감이나 스트레스 수준이 예상보다 높지 않고, 심리적 복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중년기가 일시적 적응을 요하는 전환기이고 보편적인 위기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Gould, 1978: 23; Neugarten, 1975: 93)와 같은 맥락으로도 볼 수 있지만, 서구보다 우리나라의 중년기 주부가 자신보다는 가족관계에 더 몰입하며, 가족 역할을 수행하는 정도도 더 높기(옥선화 외 4인, 1991; 루빈, 김용미 역, 1996: 24-30)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여겨진다. 즉 우리나라 중년기 주부는 직업활동에 몰두하는 남편에 대한 내조자로서, 대학진학,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해야 하는 어머니로서, 가사노동과 가게 운영을 담당하는 가사담당자로서, 친족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친족 역할의 담당자로서 가족안에서 해야 할 역할의 수가 많고 수행 수준이 높은 편이다. 그 과정에서 보상이나 만족감을 얻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역할 수

행에 몰입하여 개인적인 중년기의 위기감이나 우울증 등을 경험할 여유가 없어서 위기감이나 스트레스 수준이 낮게 보고될 수 있다.

그러나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중년기 주부들에 대한 임상적인 보고도 있으므로(장하경·서병숙, 1992; 홍완호, 1978), 중년기 주부가 심리적으로 대체로 건강하고 안정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중년기 주부의 심리적 특성을 연구할 때에는 보다 중립적이고 다차원적인 성격을 띠는 심리적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심리적 복지는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과 생활만족도, 행복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 등의 하위 차원을 포함하기 때문에(Bryant & Veroff, 1982) 중년기 주부의 가족 역할 수행이 그들의 심리적 건강 상태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력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기에 바람직하다.

한편 중년기 주부의 심리적 복지를 가족 역할과 관련시켜 볼 때 역할 수행에 따른 보상과 비용의 측면을 설명해 주는 역할이론이 유용한 틀로서 사용될 수 있다. 개인이 맡은 역할의 수가 많고 수행도가 높을수록 정체감이 부여되어 심리적 복지 수준이 높아진다는 입장(Thoits, 1983)에서 보자면 우리나라 중년기 주부의 경우 가족 역할 수행을 통해 정체감을 획득함으로써 심리적 복지 수준이 증진될 수 있다. 하지만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가진 개인이 맡은 역할 수가 많고 수행도가 높을 때 역할 간 긴장을 일으켜서 심리적 복지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역할 긴장 이론(Marks, 1977)에 근거하여 볼 때 중년기 주부의 가족 역할 수행이 심리적 복지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예측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중년기 주부의 심리적 복지에 관한 국내의 선행 연구들(김명자, 1989; 장재정, 1987; 장하경·서병숙, 1992)에서는 서구적인 중년기 개념에 입각하여 중년기 주부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가족이란 맥락보다는, 주부 개인의 심리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중년기 주부의 문제를 주부 개인의 특성이나 기질에 따른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가족과 관련시킨 경우에도 여러 관련 변인 중 가족관계 영역을 부분적으로 다루었거나(김명자·박성연, 1989) 주로 어머니 역할에 한정시켜 살펴 보았다(진미정, 199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역할 이론에 근거하여 중년기 주부의 가족 역할 즉 배우자, 어머니, 가사담당자, 친족관계유지자 역할 수행이 심리적 복지와 갖는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주부의 주요 생활의場인 가족안에서 역할 수행이 주부의 심리적 복지 수준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력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중년기 주부에게 있어 가족 역할 수행이 갖는 의미를 규명해 보고, 중년기 주부의 심리적 복지를 파악하는 데 있어 역할 이론의 유용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또한 중년기 주부의 삶의 질과 또 이들이 중추가 되는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데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심리적 복지의 개념

심리적 복지란 한 개인의 심리적 건강 상태를 측정해 주는 지표로서 다양한 집단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되었던 생활만족도와 행복감 등의 개념 중 가장 중심적인 개념이다.

심리적 복지에 관한 초기 연구들(Rescher, 1970; Wan, 1976)에서는 복지라는 것이 다차원적이 것이므로 한 사람의 복지를 고려할 경우에도 거기에는 복합적인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신체적인 복지(건강), 물리적인 복지(풍요, 번영, 부) 그리고 정신적인 심리적 복지(정서적 안정, 정신 위생)간의 관련성을 강조하였다. 최근에는 객관적인 측면보다 인간의 주관적 측면을 강조하는 심리적 복지에 초점을 두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Bryant 와 Veroff(1982)는 심리적 복지를 “생활경험에 대한 반응과 정신 건강에 대한 자기 지각으로서 생활에 대한 주관적 평가”라

고 정의했다. 심리적 복지는 객관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 필수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경험내에서 이루어지는 주관적인 지각이며 개인의 삶의 양상을 총괄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을 동시에 가진다(장재정, 1987). 따라서 심리적 복지는 다차원적인 하위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복합적인 지표이다.

중년기 주부와 관련된 여러 복지 영역의 대표적 하위 영역들로는 자존감, 결혼만족도, 부모역할 만족도, 우울증, 불안, 디스트레스, 생활만족도 등이 사용되고 있다(장재정, 1987; 전영자, 1991; 진미정, 1993; Baruch & Barnett, 1985, 1986; Umberson & Gove, 1989).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주부의 가족 역할 수행이 그들의 자존감, 생활의 만족이나 불안, 우울 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심리적 복지의 하위 영역으로 긍정적인 측면에서 자존감과 생활만족도를 부정적인 측면에서 우울증을 포함시키고자 한다.

2. 역할 이론과 심리적 복지

역할이란 한 개인이 차지하는 위치(position)나 지위(status)에 따라 기대되어지는 행동양식(유영주, 1977)인데, 역할과 심리적 복지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역할 정체감 이론과 역할 긴장 이론으로 대별될 수 있다.

역할 정체감 이론(Thoits, 1983)에서는 개인이 지닌 역할 정체감 수가 많고 몰입도가 클수록 개인의 의미있는 존재감이 강해지고, 이는 심리적 건강에 필수 요소이므로 개인의 역할 정체감의 수와 몰입도가 심리적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또한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역할을 수행할 때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면 비용보다 이익이 더 커서(Marks, 1977) 개인의 심리적 건강 수준이 증진될 수 있다고 한다(Baruch & Barnett, 1986). 이에 따르면 중년기에도 수행해야 할 역할의 세부적인 내용과 수행양이 많은 주부의 경우 가족 역할 수행을 통해 정체감을 획득할 수 있고, 심리적 복지 수준도 향상될 수 있

으리라 예측해 볼 수 있다.

한편 개인의 시간, 에너지 등은 한정되어 있고 최소한데 비해 수행해야 할 역할의 수와 양이 많을 때는 역할 수행을 통한 이익보다 비용이 더 커서 개인의 심리적 복지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이 역할 긴장 이론에서의 주장이다(Baruch & Barnett, 1986; Marks, 1987). 또한 다중역할 수행시 일정 수준의 정체감 수준을 넘어가면 역할간에 긴장과 요구의 갈등이 발생하여 개인의 존재감이 손상되고 심리적 복지가 감소된다고 한다(Baruch & Barnett, 1986; Thoits, 1983). 중년기 주부가 수행해야 할 가족 역할의 수나 양이 많다는 것은 자존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요인이지만 이와 함께 역할 긴장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신체적 건강 수준이 낮아지는 중년기(김명자, 1989)에 과도한 역할 수행은 신체적, 심리적 건강 수준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전업주부의 경우 자신의 성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가족과의 관계속에서 수행하는 역할들은 주부의 자아정체감의 위기를 가져 오는 긴장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역할 이론을 적용시킨 선행 연구들에서는 중년기 주부의 중다역할을 직업 역할과 가족 역할로 구분하였는데 이 중 가족 역할에는 배우자 역할, 어머니 역할(김명자, 1981; 옥선화, 1982; 유영주, 1977; Aneshensel et al, 1981; Baruch & Barnett, 1985, 1986; Umberson & Gove, 1989), 며느리 역할, 살림관리자 역할, 친족 역할(김명자, 1981; 옥선화, 1982) 등이 포함되어 이들과 심리적 복지와의 관련성, 역할 수행 양상 등을 살펴 보았다. 전반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주부의 심리적 복지 수준이 높았고(Aneshensel et al, 1981), 어머니 역할 수행이 스트레스와 우울을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Baruch & Barnett, 1985, 1986; Umberson & Gove, 1989).

국외 연구들에 비해 국내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중년기 주부의 가족 역할의 수가 더 많았고, 수행 정도도 더 높아서 중년기 주부의 가족 역할 수행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은 서구와 다른 양상을 보 이리라 예측된다.

본 연구에서는 역할 이론과 선행 연구들에 근거하여 중년기 주부의 가족 역할을 배우자 역할, 어머니

역할, 가사담당자 역할, 친족관계유지자 역할로 구분하고 각 역할 수행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중년기 주부의 심리적 복지

중년기 주부의 심리적 복지와 관련된 변수들 중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수로 연령, 교육수준, 가계소득, 종교유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령에 따른 심리적 복지에 대한 연구 결과는 일관성이 없어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연령에 따라 심리적 복지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김명자, 1989; 김명자·박성연, 1989; 진미정, 1993), 생활연령보다는 자각연령이 더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명자·박성연, 1989), 연령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위기감이나 우울 성향이 높다는 연구(박경숙·김명자, 1991; 신기영, 1991; 옥선화 외 4인, 1991), 연령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Baruch & Barnett, 1986) 등의 비일관적인 결과가 제시된다.

교육수준에 따른 중년기 주부의 심리적 복지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대체로 일치한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위기나 우울, 디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많이 알고 있어 위기감, 디스트레스, 우울수준이 낮게 보고 된다(권경희, 1986; 김명자, 1989; 신기영, 1991; 이정우·최덕경, 1992).

가계소득과 중년기 주부의 심리적 복지의 관련성을 살펴 본 선행 연구들에서는 대체로 가계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가 높게 나타났다(권경희, 1986; 김명자, 1989). 사회경제적으로 하층 집단일수록 예측할 수 없는 사건에 더 많이 노출되어 정신건강 수준이 낮고, 중년기에는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 재정적 압력이 큰 시기이므로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주부의 심리적 안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Oppenheimer, 1974)

인생의 유한성에 직면한 중년기 주부에게 종교는 실존의 위기를 극복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을 하므로(Madeline, 1981), 종교

가 있는 주부가 없는 주부보다 위기감이 낮고(신기영, 1991), 스트레스에 더 잘 적응하며(박경숙·김명자, 1991), 생활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Madeline, 1981). 종교가 중년기 주부의 심리적 복지 수준을 증가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리라 예측되어 본 연구에서는 종교와 중년기 주부의 심리적 복지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4. 중년기 주부의 가족 역할 수행과 심리적 복지

(1) 중년기 주부의 배우자 역할 수행과 심리적 복지

중년기는 가족관계에서의 새로운 전환이 필요할 시기로 자녀 양육을 중심으로 한 부모 역할에서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한 남편, 아내 역할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자녀의 성장으로 부모역할이 감소되면서 부부간에 상호 공동의 경험과 활동을 함께 나눈다고 한다(Sheehy, 1976: 43).

특히 결혼이나 부부관계에 남성보다 더 몰입하고(Gove & Tudor, 1973), 신체적, 정신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역할의 수나 양이 남성보다 더 많은 여성에게 있어서(김명자·박성연, 1989) 중년기에 새롭게 부각되는 부부관계에서의 배우자 역할은 그들의 심리적 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결혼 지위 자체는 남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결혼의 정서적 질은 여성에게 더 중요하여 결혼만족도가 높은 여성일수록 심리적 건강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김명자·박성연, 1989; Gove & Tudor, 1983). 또한 전업주부의 경우 남편의 지위와 자신의 지위가 동일시되고, 남편의 직업적 성공을 통해 대리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므로(박혜란, 1990: 70-75) 남편의 내조자 역할을 통해 자아정체감을 획득함으로써 심리적 복지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

그러나 남편을 통한 자아규정에 동조하지 않는 중년기 주부들은 불만족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고(박혜란, 1990: 80), 전통적인 성역할 수행을 통해 남성보다 여성의 우울증, 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Gove & Tudor, 1973)을 볼 때 중

년기 주부의 배우자 역할 수행과 심리적 복지간의 부정적인 관련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주부의 배우자 역할 수행과 심리적 복지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때 배우자 역할의 하위 영역으로는 일상적인 가사노동과 관련되는 가사담당자 역할과 구분하기 위해, 남편과의 관계에서만 직접적으로 수행되는 의사소통, 여가 생활 공유, 성생활 등의 영역으로 한정한다.

(2) 중년기 주부의 어머니 역할 수행과 심리적 복지

자녀는 그들을 양육하는 여성들에게 있어서 기쁨이자 부담으로 여겨지며, 어머니 역할 수행을 통해 대부분의 여성들이 긴장과 부담감을 느끼고, (Umberson & Gove, 1989), 특히 전업주부들의 경우 자아정체감 위기로 인해 정신 건강 수준이 낮아진다고 보고된다(Gove & Geerke, 1977). 자녀가 독립하여 빈둥지기로 전이되는 시기에 중년기 주부의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과 수행 정도가 감소되어 심리적 복지 수준이 향상된다(Baruch & Barnett, 1986). 그러나 이는 서구의 현상이고 자녀의 대학 입학까지의 과정에서 어머니의 시간과 에너지 투자량이 서구보다 훨씬 크고, 이후에도 자녀의 독립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 상황에서는 중년기가 결코 자녀 양육의 의무에서 해방된 시기라고 볼 수는 없다(신기영, 1991; 진미정, 1993). 따라서 그 만큼 어머니 역할의 내용과 수행양이 많은데, 一例로 40대 중산층 주부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자녀의 성적, 진학, 진로 및 취업 등 자녀와 관련된 문제로 제기되고(육선화 외 4인, 1991), 30-40대 주부의 가사노동 시간이 가장 길게 나타나고 있다(김외숙 외 6인, 1995). 이러한 어머니 역할의 과중한 수행 부담과 어머니 역할에 대한 높은 기준들로 인해 중년기 주부의 심리적 복지 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권경희, 1986; 진미정, 1993).

이와같이 어머니 역할 수행과 심리적 복지간에는 부정적인 관련성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많은데 비용과 보상, 긴장과 만족의 원천으로서의 자녀가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

다.

(3) 중년기 주부의 가사담당자 역할 수행과 심리적 복지

중년기 주부는 배우자 역할과 어머니 역할 수행을 통해 부담과 긴장을 겪을 수 있지만 남편과 자녀에게 원조와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그들로부터 인정과 보상을 받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고립된 채 일상적이고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사노동을 수행하면서 중년기 주부는 신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부담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일상적인 가사노동을 하는 주부의 역할은 많은 기술과 높은 교육 수준을 요구하지도 않고, 취업이나 어머니, 배우자 역할 보다 상대적으로 비구조적, 비가시적이라서 주부들의 좌절의 원인으로 제기된다(Bird & Ross, 1993; Gove & Tudor, 1973)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연구 결과를 보면, 취업주부는 어머니 역할을, 전업주부는 가사담당자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김명자, 1981),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활동 지향적일수록 심리적 복지가 높았다(김수진, 1989). 이와 같은 국내의 연구의 상반된 결과를 규명하기 위해서 중년기 주부의 가사담당자 역할 수행이 그들의 심리적 복지와 어떻게 관련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4) 중년기 주부의 친족관계유지자 역할 수행과 심리적 복지

현대가족의 친족관계가 그 범위나 접촉 인원수는 과거에 비해 감소했으나 직계혈연의식에 입각한 친족주의가 강한(이효재, 1987: 121) 우리가족의 성격상 친족관계유지 역할의 주 수행자인 중년기 주부의 심리적 복지에 이러한 역할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여겨진다.

중년기 주부의 친족관계유지자 역할 수행과 심리적 복지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두 가지 견해로 구분된다. 그 하나는 중년세대가 노인부모세대와 젊은 자녀세대 사이의 중간에 위치하면서 양세대 모두로부터 심리적으로 분리감을 느끼고(Neugarten, 1975: 94), 경제적으로 압박감을 느끼므로(Oppenheimer,

1974) 친족관계유지자 역할 수행을 통해 중년기 주부의 심리적 복지수준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또 다른 하나는 친족관계망에 관한 연구들(김경원, 1989; 신기영, 1991)로서 주부와 친족관계망과의 상호작용 종류나 양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고, 친족원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원이 중년기 주부의 위기감을 감소시켜 주고(신기영, 1991) 사기나 심리적 복지 수준을 증진시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Arling, 1976).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가족의 성격을 반영하여 중년기 주부의 가족 역할 영역에 친족관계유지자 역할을 포함시켜서 심리적 복지와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 때 친족은 주부를 중심으로 시가와 친가 친족성원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이들과의 상호작용시 중년기 주부가 수행하는 회합, 사교, 도구적 지원, 정서적 지원의 제공 등을 친족관계유지자 역할의 하위 영역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III. 연구문제

중년기 주부의 가족 역할 수행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중년기 주부의 가족 역할 수행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중년기 주부의 심리적 복지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중년기 주부의 심리적 복지는 사회인구학적 변수(연령, 교육수준, 가계소득, 종교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중년기 주부의 심리적 복지는 가족 역할 수행(배우자 역할 수행, 어머니 역할 수행, 가사담당자 역할 수행, 친족관계유지자 역할 수행)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5〉 중년기 주부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V. 조사방법 및 절차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40세에서 59세 사이의 주부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가족형태, 자녀연령, 취업에 따른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하여 핵가족이며, 막내 자녀가 만 10세 이상인 유배우 전업주부 374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 대상으로 한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주부의 연령은 40세에서 44세 집단이 34.7%, 45세에서 49세 집단이 28.6%, 50세에서 54세 집단이 20.5%, 55세에서 59세 집단이 16.2%였다. 주부의 교육 수준은 중졸 이하가 19.5%, 고졸이 47.6%, 대졸 이상이 32.9%로 고졸 집단이 가장 많았으며, 가계소득은 100만원 미만 집단이 4.0%, 100-199만원 집단이 28.1%, 200-299만원 집단이 32.6%, 300-399만원 집단이 19.3%, 400만원 이상인 집단이 15.5%였다. 중년기 주부의 남편의 직업은 전문직·전문기술직이 21.4%, 경영·관리직이 34.8%, 사무직이 10.7%, 생산·판매·서비스직이 29.1%, 무직·은퇴가 4%였다. 중년기 주부의 77.5%가 종교를 갖고 있고 22.5%는 종교를 갖고 있지 않았다.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도구의 구성

(1) 중년기 주부의 심리적 복지

심리적 복지는 생활 경험에 대한 반응과 정신 건강에 대한 자기 지각으로서 생활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Bryant & Veroff, 1982)를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 생활만족도, 우울증의 하위 영역을 포함하는 주관적인 평가라고 정의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심리적 복지 척도는 긍정적 측면에서 자존감 척도와 생활만족도 척도, 부정적 측면에서 우울증 척도를 하위 영역으로 하여 구성되었다.

자존감 척도로 Rosenberg(1972, Umberson & Gove, 1989에서 재인용)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 10문항을 사용하였는데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척도의 점수 범위는 10점에서 5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생활만족도 척도는 Hayes와 Stinnett(1971), 임정빈(1988)의 척도를 바탕으로 하여 총 10문항을 선정하였다. 중년기 주부의 가정생활에서의 만족도 양상을 측정하는 것으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 범위는 10점에서 5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우울증 척도는 Johns Hopkins 대학에서 개발된 증후군 척도(SCL-90-R)를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1984) 등이 번안, 수정한 간이정신건강척도와 CEDS(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척도를 바탕으로 11문항을 작성하였다. 지난 1주일 동안 11문항의 우울증상을 얼마나 경험했는지를 물어보는 내용으로서 '전혀 그런 적 없다'에서부터 '매우 심하다'까지 5점의 Likert 형으로 측정된다. 점수 범위는 11점에서 5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타당도는 박사과정 이상의 가족학 전공자들로부터 내용타당도 검증은 받았다. 내적 일관성에 의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자존감 척도가 .78, 생활만족도 척도가 .83, 우울증 척도가 .85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다.

(2) 가족 역할 수행

가족 역할 수행은 중년기 주부가 가족 안에서 차지하는 위치나 지위에 따라 기대되어지는 행동 양식(유영주, 1977)으로 정의되며, 하위 영역으로는 배우자 역할 수행, 어머니 역할 수행, 가사담당자 역할 수행, 친족관계유지자 역할 수행이 포함된다.

중년기 주부의 가족 역할 수행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김명자, 1981; 김효숙, 1988; 옥선화, 1982; 유영주, 1977)을 바탕으로 아내, 어머니, 가사담당자, 친족관계유지자 역할 수행 척도를 작성하였다.

각 영역마다 6문항씩 총 24문항인데 배우자 역할 수행 척도는 남편의 직장생활에 대한 내조, 의논·대화 상대, 남편시중, 건강관리, 성생활, 여가생활 공

유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어머니 역할 수행 척도는 자녀들의 의논·대화상대, 생활지도, 학업·진학지도, 자녀들의 이성교제·성문제 지도, 건강관리, 자녀들의 직업·결혼지도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가사담당자 역할 수행 척도는 식사준비, 집안청소, 세탁·의류손질, 간단한 집수리, 생활비 관리, 예금·목돈 마련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친족관계유지자 역할 수행 척도는 시대(친정)의 행사 참여, 회합, 경제적 원조, 서어비스 지원, 정서적 지원 제공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영역의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값은 배우자 역할 수행이 .85, 어머니 역할 수행이 .88, 가사담당자 역할 수행이 .80, 친족관계유지자 역할 수행이 .85로 나타났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하지 않는다' 1점, '가끔 한다' 2점, '때때로 한다' 3점, '자주 한다' 4점, '항상 한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점수 범위는 각각의 하위 영역은 6점에서부터 30점, 전반적인 수행은 24점에서부터 120점까지인데, 점수가 높을수록 중년기 주부의 가족 역할 수행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앞서 1996년 8월 16일부터 6일간 30명의 중년기 주부를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한 후,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토하여 수정하고 이를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본 조사는 1996년 8월 26일부터 9월 20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총 500부의 질문지를 배포하였다. 중년기 주부의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고루 포함되도록 강북 지역 고등학교 2개교와, 강남 지역의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1개교, 대학교 4개교에 배포하였고 종교단체, 사회봉사, 취미교양단체 등 3개 단체의 주부들에게 질문지를 배포하였다. 회수된 질문지는 총 404부로 회수율이 80.8%였으며 이중 부실기재와 본 연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질문지는 제외시켜 총 374부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4. 자료 분석 방법

조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주요 변수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였으며,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사용하였다. 중년기 주부의 가족 역할 수행에 따른 심리적 복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 Scheffé, t 검증을 사용하였으며,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PC+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V. 결과 및 해석

1. 중년기 주부의 가족 역할 수행의 전반적 경향

중년기 주부의 가족 역할 수행의 전반적 경향을 총체적인 수준과 하위 영역별 수준으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중년기 주부의 가족 역할 수행의 전반적 경향

(N=374)

변 수	평 균	표준편차	범 위
가족역할수행:	85.15	12.44	24-120
배우자역할수행	18.68	4.77	6-30
어머니역할수행	22.24	4.73	6-30
가사담당자역할수행	25.60	3.62	6-30
친족관계유지자역할수행	18.63	5.06	6-30

우선 총체적인 가족 역할 수행의 평균은 85.15점(점수범위: 24점-120점)으로 척도의 중간값인 72점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하위 영역별로 보면, 하위 영역별 척도의 중간값인 18점을 중심으로 볼 때 배우자 역할 수행(평균 18.68점), 친족관계유지자 역할 수행(평균 18.63점)은 중간 수준 정도이며, 어머니 역할 수행(평균 22.24점), 가사담당자 역할 수행(평균 25.60점)은 중간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자녀가 18세 이후 진학과 취업 등으로 독립해 나가 주부의 가족 역할 수행의 양이 현격히 감소하는 서구의 중년기에 비해(Baruch &

Barnett, 1985,1986) 우리나라에서는 중년기 주부가 결코 가족 역할 수행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족관계의 중심축인 부부관계와 관련된 배우자 역할 수행보다 어머니 역할 수행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자녀의 대학진학, 취업, 결혼과 관련하여 중년기 주부들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한편 친족관계유지자 역할의 수행 수준을 볼 때 과거보다 친족의 범위나 접촉 인원 수가 많이 감소하였어도(이효재, 1987: 121) 여전히 중년기 주부가 친족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 우리나라 가족이 외형상 핵가족 형태를 띠고 있다 하더라도 친족관계유지자 역할이 중년기 주부의 중요한 가족 역할 중 하나(김경원, 1989; 신기영, 1981)임을 보여 준다.

2. 중년기 주부의 심리적 복지의 전반적 경향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중년기 주부의 심리적 복지의 하위 영역인 자존감, 생활만족도, 우울증의 전반적 경향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중년기 주부의 심리적 복지의 전반적 경향 (N=374)

변 수	평 균	표준편차	범 위
심리적 복지:			
자 존 감	33.36	5.06	10-50
생활만족도	32.05	6.47	10-50
우 울 증	30.13	6.97	11-55

중년기 주부의 자존감과 생활만족도의 평균 점수는 각각 33.36점, 32.05점으로 이 척도들의 중간값인 30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우울증의 평균 점수는 30.13점으로 척도의 중간값(33점)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로써 볼 때 중년기 주부의 심리적 복지 수준이 보통 수준보다 다소 높고 안정되어 있으며 하위 영역간에 일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심리적 복지의 부정적 측면인 우울증의 수준이

중간 수준보다는 낮지만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인데 중년기 위기감이나 스트레스, 우울 수준이 매우 낮다고 보고하는 선행 연구들(김명자, 1989; 진미정, 1993; 장재정, 1991)과 비교해 볼 때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심리적 복지의 긍정적 측면인 자존감, 생활만족도가 낮지는 않으므로 중년기를 위기의 시기로 보는 견해(Peplau, 1975)와 같은 맥락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중년기 주부의 심리적 복지 수준은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항상 긍정적인 측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이 함께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중년기를 긍정적 혹은 부정적이라는 일방적인 관점에서만 보기보다는 이 두가지 측면이 공존하는 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3.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중년기 주부의 심리적 복지

사회인구학적 변수인 중년기 주부의 연령, 교육수준, 가계소득, 종교 유무에 따른 중년기 주부의 심리적 복지 수준을 일원분산분석과 t 검증을 통해 살펴보고, 일원분산분석의 추후 검증으로 Scheffé 검증을 하였다. 연구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연령에 따른 중년기 주부의 심리적 복지 수준은 세 영역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중년기의 심리적 복지 상태가 그 내부적으로 연령 집단간의 차이 없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진미정(1993)의 연구와 연령에 따라 중년기 위기감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들(김명자, 1989; 김명자·박성연, 1989)과 일치한다. 중년기 주부들의 심리적 복지 수준에 있어서는 생활연령보다는 '중년기'란 인생의 일정시기가 전체적으로 갖는 의미가 더 큰 것으로 여겨진다.

교육수준에 따른 심리적 복지는 세 영역중에서 자존감 영역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4.48, p<.05). 자존감 정도에 대한 추후 검증 결과 대졸이상 집단이 고졸 집단보다 자존감이 높는데 이들이 고졸

1)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1/3 정도가 우울증에서 척도의 중간값(33점)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3〉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중년기 주부의 심리적 복지

(N= 374)

독립변수	집단(빈도)	자 존 감		생활만족도		우 울 증	
		평 균	F	평 균	F	평 균	F
연 령	40-44세(130)	33.33	F=	31.59	F=	29.82	F=
	45-49세(107)	33.17	.34	31.41	2.45	29.66	.84
	50-54세(77)	33.89		32.57		30.70	
	55-59세(60)	33.12		34.12		31.26	
교육수준	중졸이하(73)	32.74 ab	F=	30.73	F=	30.90	F=
	고 졸(178)	32.84 a	4.48*	31.92	2.89	30.42	1.62
	대졸이상(123)	34.46 b		33.00		29.23	
가계소득	100만원미만(15)	31.33 ab	F=	28.60 a	F=	34.27 a	F=
	100-199만원(105)	32.84 a	3.83**	31.56 ab	3.16*	29.88 b	3.00*
	200-299만원(122)	33.31 ab		31.93 ab		30.99 ab	
	300-399만원(72)	32.97 ab		31.72 ab		29.54 b	
	400만원이상(60)	35.55 b		34.34 b		28.99 b	
종교유무	유(290)	33.63	t=	32.48	t=	29.74	t=
	무(84)	32.46	1.86	30.46	2.36*	31.58	-2.08*

* p < .05, ** p < .01

집단의 주부들보다 상대적으로 자원을 많이 가질 수 있어(신기영, 1991) 자기 스스로에 대한 평가나 만족감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가계소득에 따른 중년기 주부의 심리적 복지는 세 영역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자존감: $F=3.83$, $p<.01$, 생활만족도: $F=3.16$, $p<.05$, 우울증: $F=3.00$, $p<.05$). 추후 검증 결과 자존감은 가계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집단이 100-199만원인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생활만족도는 400만원 이상인 집단이 100만원 미만인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우울증은 400만원 이상인 집단이 100만원 미만인 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았는데, 이로써 볼 때 가계소득 수준이 매우 높은 집단과 매우 낮은 집단간에 차이가 나고, 중간 수준의 집단들에서는 가계소득이 중년기 주부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음을 알 수 있다. 사회경제적으로 하층 집단일수록 예측할 수 없는 사건에 더욱 많이 노출되어 정신건강 수준이 낮고, 중년기에는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 재정적 압력이 큰 시기이므로(Oppenheimer, 1974) 저소득층 중년기 주부의 심리적 복지를 증진시켜 주는 방안들이 강구될 필요성이 있다.

종교 유무에 따라서는 자존감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생활만족도와 우울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종교가 있는 중년기 주부가 없는 주부보다 생활만족도가 더 높고($t=2.36$, $p<.05$), 우울증이 더 낮았다($t=-2.08$, $p<.05$). 이는 종교를 가진 중년기 주부가 그렇지 않은 중년기 주부보다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고 위기감, 우울증도 낮다는 선행 연구들(박경숙·김명자, 1991; 신기영, 1991)을 지지해 주는데, 인간 실존의 위기를 극복하게 해 주는(Madelene, 1981) 종교가 중년기 주부의 심리적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4. 중년기 주부의 가족 역할 수행과 심리적 복지

(1) 중년기 주부의 배우자 역할 수행에 따른 심리적 복지

중년기 주부의 가정내 역할 수행에 따른 심리적 복지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각 영역에서 역할 수행 점수에 따라 3개의 하위 집단²⁾으로 나눈 후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추후 검증으로 Scheffé 검증을 하였다.

〈표 4〉 중년기 주부의 배우자 역할 수행에 따른 심리적 복지

(N=374)

변 수	집단(빈도)	자 존 감		생활만족도		우 울 증	
		평균	scheffé	평균	scheffé	평균	scheffé
배 우 자 역할수행	낮은 집단(128)	32.30	a	28.83	a	32.36	a
	중간 집단(130)	32.84	a	31.92	b	29.82	b
	높은 집단(116)	35.10	b	35.77	b	28.00	b
	F	F=10.94***		F=42.86***		F=12.81***	

*** p < .001

〈표 4〉에서 보듯이 배우자 역할 수행에 따라 중년기 주부의 심리적 복지의 세 하위 영역인 자존감, 생활만족도, 우울증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중년기 주부의 배우자 역할 수행 수준이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게 나타났고(F=10.94, p<.001), 추후 검증 결과 배우자 역할 수행 수준이 높은 집단이 중간 이하인 집단보다 자존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년기 주부의 배우자 역할 수행도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F=42.86, p<.001), 역할 수행이 낮은 집단보다 중간 이상 집단의 생활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울증에서는 배우자 역할 수행 수준과 부적인 관련성이 나타났고(F=12.81, p<.001) 배우자 역할 수행이 낮은 집단에 비해 중간 이상 집단의 우울증이 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기에 부부관계가 새롭게 부각되면서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증진되고 공유하는 생활의 경험이 증가되어 결혼만족, 생활만족도가 증가한다는 견해(Sheehy, 1976: 156)와 부부관계를 통해 보상과 만족을 얻는다는 선행 연구들(Aneshensel et al, 1981; Baruch & Barnett, 1985, 1986)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즉 중년기 주부의 배우자 역할 수행 하위 영역에 남편과의 의사소통, 대화, 여가활동 공유, 성생활 등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년기 주부가 이러한 배우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남편과의 관계를 통해 만족을 얻고 결과적으로 심리적 복지 수준이 향상되는 것이라 해석된다. 우리나라의

중년기 주부들이 자녀의 대학입학, 취업, 결혼 등으로 인해 자녀 위주의 역할 수행을 많이 함으로써(옥선화 외 4인, 1991) 선행 연구들에서는 모-자녀 관계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많았는데,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볼 때 중년기 주부에게 있어 부부관계도 그들의 심리적 복지에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결과를 볼 때 본 연구에서는 개인에게 과도한 역할 수행이 요구될 때 긴장이 발생한다는 역할 긴장 이론보다 개인에게 부여된 역할의 수나 몰입도가 높을수록 정체감이 부여되어 개인의 심리적 복지 수준이 증진된다는 역할 정체감 이론(Marks, 1977)이 지지되었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이 전업주부이므로 취업활동을 통한 정체감 획득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현재 중년기 주부들이 남편을 통한 대리 만족, 대리 성취를 통해 만족과 보상을 얻도록 성 역할 사회화된 세대(박혜란, 1990: 75)이므로 배우자 역할이 주부에게 정체감을 부여해 주고 자존감과 생활만족도를 높여주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여겨진다.

(2) 중년기 주부의 어머니 역할 수행에 따른 심리적 복지

중년기 주부의 어머니 역할 수행에 따른 심리적 복지의 양상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어머니 역할 수행 수준이 높을수록 자존감, 생활만족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자존감: F=17.18, p<.001, 생활만족도: F=20.06, p<.001), 우울증은 감소하였다(F=7.35, p<.001). 추후 검증 결과 자존감, 생활

2) 가족 역할 수행에 있어서 하위 집단은 각각의 평균과 표준편차($\bar{M} \pm 1/S.D.$)를 고려하여 3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표 5〉 중년기 주부의 어머니 역할 수행에 따른 심리적 복지

(N=374)

변 수	집단(빈도)	자 존 감		생활만족도		우 울 증	
		평 균	scheffé	평 균	scheffé	평 균	scheffé
어 머 니 역 할 수 행	낮은 집단(102)	31.10	a	28.99	a	32.34	a
	중간 집단(146)	33.65	b	32.37	b	29.36	a
	높은 집단(126)	34.84	b	34.14	b	29.22	b
	F	F=17.18**		F=20.06**		F= 7.35**	

*** p < .001

만족도 모두에서 어머니 역할 수행 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 중간 이상인 집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우울증은 어머니 역할 수행이 높은 집단이 중간 이하 집단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 역할 수행이 중년기 주부에게 긴장과 부담의 원천으로 작용하여 심리적 복지 수준을 감소시킨다는 선행 연구들(진미정, 1993; Baruch & Barnett, 1988)과 불일치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선행 연구들은 역할 수행에 따른 부담, 스트레스 등 부정적 정서를 중심으로 보았고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역할 수행이라는 외현적 활동 중심으로 보았다는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중년기 주부들에게 있어서 어머니 역할이란 긴장과 부담의 요인뿐 아니라 보상과 만족의 원천(Goldsteen & Ross, 1989)으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역할 긴장 이론보다 역할 정체감 이론 측면에서 어머니 역할이 배우자 역할 못지 않게 중년기 주부들의 삶의 의미나 생활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자녀의 대학 입학때까지의 과정에서 어머니의 시간과 에너지 투자량이 서구보다 훨씬 크고, 대학 입학 이후에도 자녀의 독립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 상황에서(옥선화 외 4인, 1991) 중년기 주부에 대한 어머니 역할의 요구량이나 수준이 매우 높아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년기 주부 스스로 자존감이나 생활만족도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이 어머니 역할 수행을 통한 중년기 주부의 심리적 복지 수준이 높게 나타났는데, 그것이 과연 어느 시기까지 중년기 주부의 심리적 복지 향상

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자녀와의 일체감이 높고(진미정, 1993) 자녀를 통해 대리 만족을 얻고자 하는(루빈, 김용미 역, 1996: 50) 중년기 주부들이 어머니 역할에 지나치게 몰입함으로써 중년기라는 인생의 전환기에 겪는 위기감(김명자, 1989)을 경험하지 못 하다가, 자녀에 대한 몰입 수준이 감소되는 시기가 되어 뒤늦게 중년의 위기감, 자아정체성의 상실을 경험할 수 있다. 중년기의 발달 과업이 위기감을 잘 극복하고 자아정체감을 확립하여 성공적인 노년기를 준비하는 것이라 할 때(Levinson, 1978: 45) 지나치게 어머니 역할에 몰입한다는 것이 그 당시에는 중년기 주부의 심리적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 예측된다.

(3) 중년기 주부의 가사담당자 역할 수행에 따른 심리적 복지

〈표 6〉에서 보듯이 중년기 주부의 가사담당자 역할 수행은 자존감, 생활만족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우울증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F=4.10, p<.05). 이를 추후 검증해 본 결과 가사담당자 역할 수행이 낮은 집단이 중간 이상인 집단보다 우울증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사활동 지향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전업주부의 심리적 복지 수준이 증가한다는 견해(김수진, 1989)를 부분적으로 지지해 준다. 중년기 주부가 가사담당자 역할 수행을 통해 가계 운영의 책임자란 정체감을 갖고, 가족들에게 봉사함으로써 보

〈표 6〉 중년기 주부의 가사담당자 역할 수행에 따른 심리적 복지

(N=374)

변 수	집단(빈도)	자 존 감		생활만족도		우 울 증	
		평 균	scheffé	평 균	scheffé	평 균	scheffé
가사담당자 역할수행	낮은 집단(79)	32.56		30.94		32.10	a
	중간 집단(172)	33.19		32.61		29.56	b
	높은 집단(123)	34.10		31.96		29.65	b
	F	F=2.41		F=1.82		F=4.00*	

* p < .05

〈표 7〉 중년기 주부의 친족관계유지자 역할 수행에 따른 심리적 복지

(N=374)

변 수	집단(빈도)	자 존 감		생활만족도		우 울 증	
		평 균	scheffé	평 균	scheffé	평 균	scheffé
친족관계 유지자 역할수행	낮은 집단(145)	32.39	a	30.25	a	31.41	a
	중간 집단(115)	33.38	ab	33.13	b	29.16	b
	높은 집단(114)	34.56	b	33.25	b	29.47	ab
	F	F=6.05**		F=9.60***		F=4.13*	

* p < .05 ** p < .01, *** < .001

상과 인정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우울증이 감소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보인다.

가사담당자 역할 수행이 심리적 복지의 다른 두 가지 하위 영역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 하므로 중년기 주부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은 가정 내 역할의 다른 하위 영역에서보다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다.

(4) 중년기 주부의 친족관계유지자 역할 수행에 따른 심리적 복지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년기 주부의 친족관계유지자 역할 수행은 심리적 복지의 세 가지 하위 영역 모두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추후 검증 결과 친족관계유지자 역할 수행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자존감이 유의하게 높았다(F=6.05, p < .01), 생활만족도는 친족관계유지자 역할 수행 수준이 중간 이상인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9.60, p < .001). 우울증은 친족관계유지자 역할 수행 수준이 낮은 집단이 중간인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4.13, p < .05).

전반적으로 볼 때 친족관계유지자 역할 수행이 중년기 주부의 심리적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이러한 역할을 많이 수행하는 주부일수록 심리적 복지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친족관계유지에 있어 중년기 주부의 역할이 그들의 심리적 복지 수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아직까지도 친족관계유지자 역할이 중년기 주부의 가족 역할의 한 부분으로 남아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우리나라 가족이 외형상 핵가족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친족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선행 연구들(김경원, 1989; 이호재, 1987; 신기영, 1991)의 견해를 지지해 준다.

배우자 역할 수행, 어머니 역할 수행에서처럼 친족관계유지자 역할 수행면에서도 역할 긴장 이론보다 역할 정체감 이론의 설명력이 더 높아 중년기 주부의 친족관계유지자 역할 몰입도가 클수록 그들의 역할 정체감이 높아져 심리적 복지 수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5) 독립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

중년기 주부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은 t-test와 일원분산분석에서 의미있게 나타난 변수인 중년기 주부의 교육수준, 가계소득, 종교유무, 배우자 역할 수행, 어머니 역할 수행, 가사담당자 역할 수행, 친족관계유지자 역할 수행이다. 독립변수들간의 상관을 산출하였으며³⁾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있는 변수들이 발견되지 않아 선정된 독립 변수들을 모두 회귀분석에 포함시켰다.

그 결과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년기 주부의 자존감에는 어머니 역할 수행($\beta=.26$), 배우자 역할 수행($\beta=.12$)순으로 의미있는 영향을 미쳤고, 이들 2개 변수들에 의해 자존감은 17%가 설명되었다. 생활만족도에는 배우자 역할 수행($\beta=.42$), 어머니 역할 수행($\beta=.19$) 순으로 의미있는 영향을 미쳤고, 이들 2개 변수들에 의해 생활만족도는 30%가 설명되었다. 우울증에는 배우자 역할 수행($\beta=-.26$)만이 의미있는 영향을 미쳤고 11%의 설명력이 있었다.

이상과 같이 보았을 때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중년기 주부의 가족 역할 수행 영역 중 배우자 역할

수행과 어머니 역할 수행이 이들의 자존감과 생활만족도를 높여주는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자존감에서는 어머니 역할 수행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중년기 주부가 자신의 의미를 규정하고 유용성, 정체감을 획득하는 데 있어 어머니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해 준다. 또한 어머니 역할 수행 요구가 낮아지는 중년기 후반, 노년기에 가서는 이들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아에 대한 위기의식,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생활만족도와 우울증에서는 배우자 역할 수행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자존감 획득에는 어머니 역할 수행이 중요하지만 일상적인 생활에서 만족이나 불만, 우울을 느끼는 면에 있어서는 배우자 역할이 더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배우자 역할 수행이 심리적 복지의 세 가지 하위 영역을 설명해 주는 공통적 변수로 추출되었는데 이로써 볼 때 중년기 부부관계가 주부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며 실제적인 수행 수준은 어머니 역할 수행이 배우자 역할 수행보다 높지만 중년기 주부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면에서는 배우자 역할 수행이 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

<표 8> 중년기 주부의 심리적 복지에 대한 중다회귀 분석

(N=374)

종속변수	독립변수	b	β	R ²	F
자 존 감	어머니역할수행	.27	.26***	.17	14.62***
	배우자역할수행	.12	.12*		
생활만족도	배우자역할수행	.57	.42***	.30	25.39***
	어머니역할수행	.26	.19***		
우 울 증	배우자역할수행	-.37	-.26***	.11	7.10***

** p < .01, *** p < .001

3) 독립변수로 선정된 가족역할수행 4가지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변 수	배우자역할수행	어머니역할수행	가사담당자역할수행	친족관계유지자역할수행
배우자역할수행	1.00			
어머니역할수행	.25	1.00		
가사담당자역할수행	.17	.18	1.00	
친족관계유지자역할수행	.14	.17	.18	1.00

러한 연구 결과를 볼 때 중년기 주부의 심리적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부모자녀 중심의 역할 구조 뿐만 아니라 부부 중심의 역할 구조가 긍정적인 기여를 하리라고 생각된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년기 주부의 가족 역할 수행이 그들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역할 이론에 근거하여 살펴 봄으로써 중년기 주부의 심리적 양상을 이해하고, 이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40-59세의 중년기 전업 주부 374명을 대상으로 배우자 역할 수행, 어머니 역할 수행, 가사담당자 역할 수행, 친족관계유지자 역할 수행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자존감, 생활만족도, 우울증 세 측면에서 살펴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중년기 주부의 가족 역할 수행은 전반적으로 중간보다 높은 편이며, 하위 영역별로 보면 배우자 역할 수행, 친족관계유지자 역할 수행은 중간 수준 정도이고 어머니 역할 수행, 가사담당자 역할 수행은 중간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로써 볼 때 우리나라 중년기는 자녀의 독립으로 주부의 가족 역할 수행의 수준이 낮아지는 서구의 중년기(Baruch & Barnett, 1985; 루빈, 김용미 역, 1996: 42)에 비해 여전히 높은 시기이며, 가족관계의 중심축인 부부관계와 관련된 배우자 역할 수행보다 어머니 역할 수행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나서 자녀와 관련하여 중년기 주부들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중년기 주부의 심리적 복지는 자존감, 생활만족도가 중간 수준보다 다소 높고, 우울증은 중간 수준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서 전반적으로 심리적 복지 수준이 다소 높고, 하위 영역간에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 그렇다고 해서 중년기 주부들이 비교적 건강하고 위기감도 낮다는 견해들(김명자, 1989; 장재정, 1991) 혹은 중년기가 위기감이나 우울이 증대하는 시기로 보는 견해들(홍완호, 1978; Peplau, 1975)

들 중 어느 한 편의 입장과 같은 맥락으로 보기에는 심리적 복지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다 같이 존재한다. 따라서 중년기를 긍정적 혹은 부정적이라는 일방적인 관점에서만 보기 보다는 이 두가지 측면이 공존하는 시기로 보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셋째,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라서 볼 때 대졸 이상인 중년기 주부의 자존감이 고졸 집단보다 의미있게 높았고, 가계소득이 매우 높은 집단, 종교가 있는 주부의 심리적 복지 수준이 높았다. 이는 교육 수준, 가계 소득, 종교 등이 중년기 주부의 정신적·물질적 자원으로 작용하여 이들의 심리적 복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중년기 주부의 가족 역할 수행은 심리적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배우자 역할 수행, 어머니 역할 수행, 친족관계유지자 역할 수행 수준이 높을수록 자존감, 생활만족도가 높았고 우울증이 낮았다. 가사담당자 역할 수행은 우울증에만 영향을 미쳐 가사담당자 역할 수행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증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중다역할과 관련하여 비용 측면을 강조한 역할 긴장 이론보다 이익 측면을 강조한 역할 정체감 이론(Marks, 1977; Thoits, 1983)이 지지되었다. 가족 역할의 하위 영역에 따라 보상과 긴장 측면이 달리 작용하여 중년기 주부의 심리적 복지 양상에 차이가 나타나는 국외 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주부의 가족 역할 수행의 보상, 만족 측면만 부각되고 있고, 심리적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중년기 주부들은 가족 역할 수행을 통해 보상과 만족을 얻고 자아정체감을 획득하므로 가족 역할 수행 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자존감과 생활만족도, 낮은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나라 중년기 주부가 가족 역할 수행에 지나치게 몰입하여 중년기의 발달상의 위기나 자아정체감의 문제를 인식할 여유가 없어서 이들의 심리적 복지 수준이 표면적으로는 높게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중년기 주부는 자신과 관련하여 자아정체감과 자존감을 획득하기 보

다는 가족과의 관계속에서 획득하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나라 중년기 주부들이 과연 가족과 분리시켜 자아를 인식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추후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중년기 주부들이 가족과 관련하여 자아정체감을 규정한다고 할 때, 배우자의 사망이나 자녀의 독립에 따라 가족관계상 변화가 발생하고, 가족 역할 수행 수준이 감소되는 시기가 될 때 심리적 복지 수준이 감소될 수 있으리라 예측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중년기 주부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해 본 결과 배우자 역할 수행은 자존감, 생활만족도, 우울증에 모두 영향을 미쳤고, 어머니 역할 수행은 자존감,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중년기 주부에게 있어 자신의 존재감, 유용성 인식과 같은 자존감 획득에는 전통적인 어머니 역할 수행이 가장 중요하며, 일상적인 생활에서 만족이나 우울을 느끼는 데 있어서는 배우자 역할 수행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배우자 역할 수행이 심리적 복지의 세 가지 하위 영역을 설명해 주는 공통적 변수로 추출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중년기 가족에서 부부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중년기 연구를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중년기 부부관계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이나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하리라 본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가족 역할 수행의 양적인 측면만을 중심으로 심리적 복지와와의 관련성을 살펴 보았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가족 역할 수행시 느끼는 긴장, 부담, 보상, 만족 등과 같은 꺾적인 특성들도 함께 살펴 본다면 심리적 복지의 양상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 중년기 주부의 가족 역할 수행을 중심으로 보았기 때문에 전업주부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가정과 사회를 연결시켜 취업주부의 직업 역할 수행과 심리적 복지간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이를 전업주부와 비교 분석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중년기 주부의 심리적 복지는 매우 개인적이고 미묘한 정서 상태라서 질문지법으로는 완벽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소수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 등의 조사 방법을 병행하는 접근이 유용하리라 본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중년기 주부의 심리적 복지를 개인적 차원에서 벗어나 가족 안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들과 관련시켜 파악함으로써 중년기 주부들이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역할 활동들이 구체적으로 그들의 심리적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였고, 중년기 주부의 심리적 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 고 문 헌】

- 1) 권경희, 한국도시주부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86).
- 2)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간이 정신진단 검사 실시요강, 서울: 적성출판사, (1984).
- 3) 김정원, 친족관계망 유대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 4) 김명자, 주부의 취업 유무에 따른 가정내 역할수행상에 관한 비교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9(3), (1981), 69-81.
- 5) 김명자, 중년기 위기감 및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89).
- 6) 김명자, 박성연, 중년기 위기감 및 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1), (1989), 97-118.
- 7) 김수진, 여성의 역할태도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고대 석사학위논문, (1989).
- 8) 김외숙 외 6인, 서울시 아파트 거주 중년기 가정의 생활실태와 문제(III): 시간사용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3(5), (1995), 129-142.
- 9) 김효숙, 도시 부부의 역할관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8).
- 10) 릴리언 루빈, 김용미(역), 중년 여성의 좌절과 홀로서기, 서울: 정우사, (1996).

- 11) 박경숙, 김명자, 중년기 여성의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1), (1991), 65-80.
- 12) 박혜란, “이 시대의 주부는 할만한 직업인가” 또 하나의 문화 (편) 주부, 그 막힘과 트임, 서울: 도서출판 또하나의 문화, (1990).
- 13) 신기영, 중년기주부의 위기감과 사회관계망지원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91).
- 14) 옥선화, 한국 도시가족의 역할구조 분석 II, 성심여대 논문집 13집, (1982), 5-34.
- 15) 옥선화, 이기춘, 이기영, 이순형, 공인숙, 현대산업사회에 있어서 40대 중산층 주 부가 지각한 가정생활의 체문제, 대한가정학회지, 29(2), (1991), 135-154.
- 16) 유영주, 취업주부의 가정내 역할 수행상의 문제, 서울대 가정대 논문집, 2, (1977), 1-15.
- 17) 이정우, 최덕경, 도시주부의 가정생활문제인지와 스트레스 정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1), (1992), 115-130.
- 18) 이효재, 가족과 사회, 서울: 경문사, (1987).
- 19) 임정빈, 가치성향, 의사결정양식 및 가정생활만족,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88).
- 20) 장재정, 중년여성의 성역할 정체감과 심리적 건강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학 위논문, (1987).
- 21) 장하경, 서병숙, 중년기 여성의 우울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1992), 263-276.
- 22) 전영자, 전문직 취업주부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안 및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1991), 323-343.
- 23) 진미정, 중년기 여성의 어머니역할 수행부담과 심리적 복지,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3).
- 24) 홍완호, 우울증빈도의 남녀대비에 관한 고찰, 신경정신의학, 17(4), (1978), 411-421.
- 25) Airling, G., The elderly widow and her family, neighbors and frien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 (1976), 757-768.
- 26) Aneshensel, C.S., Ralph, R.F., & Clark, V.A., Family roles and sex differences in depressio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Dec), (1981), 379-393.
- 27) Baruch, G.K., Barnett, R.C., & Women’s involvement in multiple roles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1), (1985), 135-145.
- 28) _____, Role quality, multiple role involve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midlife wom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3), (1986), 578-585.
- 29) Bird, C.E., & Ross, C.E., Houseworkers and paid work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4), (1993), 913-925.
- 30) Bryant, F.B., & Veroff, J.,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a sociohistoric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4), (1982), 653-673.
- 31) Goldesteen, K. & Ross, C.E., The perceived burden of children, Journal of Family Issues 10 (4), (1989), 504-526.
- 32) Gould, R.L., Transformations: growth and changes in adult life, N.Y: Simon & Schuster, (1978).
- 33) Gove, W.R., & Geerkeen, The effect of children and employment on the mental health of married men and women, Social Forces, 56(1), (1977), 66-76.
- 34) Gove, W.R., & Tudor, J.F., Adult sex roles and mental ill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 (1973), 812-835.
- 35) Hays, M. & Stinnett, N., Life satisfacion of middle-aged husbands and wives, Journal of Home Economics, 63(9), (1971), 669-674.
- 36) Levinson, D.J., The season’s of man’s life, N.Y.: Alfred Knopf, Inc., (1978).
- 37) Madelene, O.S., Religious and mid life crisis, Religious Life Review 20, (1981), 124-131.
- 38) Marks, S.R., Multiple roles and role strain: some notes on human energy, time and commit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2(4), (1977), 921-936.
- 39) Neugarten, B.L., Middle age and aging, Chicago:

- The Univ. of Chicago Press, (1975).
- 40) Oppenheimer, V., The life cycle squeeze: the interaction of men's occupation and family life cycles, *Demography*, 11, 227-245, (1975).
- 41) Peplau, H.E., Midlife crisis, *American Journal of Nursing* 75, (1975), 1761-1765.
- 42) Sheehy, G., *Passage: predictable crisis of adult life*, N.Y: Dutton, 1976.
- 43) Thoits, P.A., Multiple identiti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 reformulation and test of the social isolation hypothe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 (1983), 174-187.
- 44) Umberson, D. & Gove, W.R., Parenthood and psychological well-being-theory, measurement, and stage in the family life course-, *Journal of Family Issues* 10(4), (1989), 440-462.
- 45) Wan, T.H., Odell, B.G. & Lewis, D.T., *Promoting the well-being of the elderly. A community diagnosis*, N.Y.: The Haworth Press, (1982).